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 개소

우석대는 전북 완주군의 전북과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건설하고 6월2일 개소식을 가졌다.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는 6000㎡ 부지에 본부동과 창업동 등 2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국비 71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미래 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제품 개발을 하게 된다.

기술 개발은 연구진과 센터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결과물은 입주기업에 넘겨져 상품화할 방침이다.

이흥기 소장은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높다”면서 “부단한 연구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3>